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 환경정비 구슬땀

전주시 인후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황승일)와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임순)는 8일 회원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심 취약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회원들은 이날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정언신로 일대와 평소 주민들이 자주 찾는 아름길공원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치우는 등 시민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에 힘을 기울였다. 또한 그간 꾸준히 제기되었던 쓰레기 분리수거장 주변 청소와 잘못된 분리수거로 인한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직접 재분류 작업도 함께 실시했다.

황승일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노력해 깨끗해진 동네를 보니 많은 보람을 느낀다”며 “폐적인 인후3동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임순 새마을부녀회장은 “주민들이 편안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새마을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고창소방서, 문수산 터널 대응능력 강화 영상회의

고창소방서(서장 리명순)는 7일 관내 문수산 터널의 효율적인 재난 대응능력을 모색하고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비대면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영상회의는 리명순 고창소방서장 주관下에 각 부서별 주요 간부 13명이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문수산 터널(고창·담양고속도로, 3820m)을 대상으로 터널 화재 특성의 이해 및 각 출동대별 신속한 임무활동을 공유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 상황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실시됐다.

터널화재는 반 밀폐공간이라는 특성상 개방된 일반도로보다 더 많은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터널 내부 점진된 차량과 능연으로 인해 소방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신속한 대응 전술이 필요하다.

고창소방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문수산 터널 구조 ▲터널 화재 시 인명대피·화재진압 방법 ▲고속도로 진입 불가 시 우회방법 ▲터널 내 안전시설 및 소방시설 현황 등을 공유하며,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리명순 서장은 “터널화재 특성상 다른 유독가스 발생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상황진파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따뜻한 나눔 실천하는데 많은 노력을”

연화미당, 올해도 효자1동에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쾌척

전주시 효자동 연화미당(대표 나영환)은 8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효자동 주민센터(동장 허소영)에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연화미당(대표 나영환)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000만 원을 효자동 주민센터에 기부하며 이웃 사랑 실천에 모범이 되고 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효자동 거주 저소득층 지원과 동네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연화미당 나영환 대표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받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움을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부안 산림조합, 균농인재육성장학금 1000만원 기탁

부안군 산림조합(조합장 오세준)은 최근 부안군 균농인재 육성재단을 방문하여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

오세준 조합장은 “부안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좋은 밀거루이 되길 바라고 기부금이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권익현 부안군 균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매년 잊지 않고 장학금을 기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동참하신 뜻에 따라 장학사업이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데 잘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군산림조합은 2005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7,100만원을 장학사업 발전을 위해 기부해 왔으며 사유림 경영지도, 임산물 유통, 산림지원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촉진과 산림 생산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개발공사, 전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3000만원 기탁

전북개발공사가 지난 7일 저소득층 거주 임대주택 입주민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전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3,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열린 기탁식에는 김천환 전북개발공사 사장, 김학권 전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및 약 10명의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기탁된 장학금은 특별지정장학금으로 기부자인 전북개발공사의 뜻에 따라 저소득층 거주 임대주택 입주민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김천환 사장은 “저소득층 임대주택 거주 입주민의 자녀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그 자녀들이 자긍심을 갖고 학업에 전념해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과 공의사업을 통해 도민의 복지증진과 인재육성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학권 진흥원장은 “우리 지역의 공기업에서 뜻깊은 기탁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기탁된 장학금은 공사의 뜻에 따라 저소득층 거주 임대주택 입주민 자



녀를 위한 장학금으로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유로상 기자



한국이벤트협회 전북지회, 사랑의 연탄 나눔

(사)한국이벤트협회 전북지회(회장 문성현)는 8일 겨울 한바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의 난방연료를 지원하기 위해 연탄 200장을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목)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연탄은 풍남동 자민벽화마을에 거주하는 에너지소외계층 57가구에 각각 400장씩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협회 전북지회 회원 가족들은 가파른 경사에 있는 대상가구에 직접 연탄을 배달해줄 계획이다.

문성현 전북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이벤트업계도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아직 도움의 손길이 더욱 필요한 이웃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돼 함께하면 주운 겨울과 코로나19 모두 이겨낼 것이라 믿음으로 회원 여러분들이 이 함께 마음을 모았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2022년에는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며,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따뜻한 불을 맞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대한불교 천태종, 남원시에 아동 방역물품 기부

남원시는 대한불교 천태종 산하 (사)나누며 하나님되기가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 방역물품을 기부해 왔다고 8일 밝혔다.

기부된 방역물품은 환가액 3,000만원 상당의 아동용 마스크 10만장 및 손소독제 3만개로 남원시 관내 50개소 어린이집과 23개소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총 2,500명의 코로나 방역을 위해 배포되었다.

8일 가진 전달식에는 대한불교 천태종 측과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장과 어린이집연합회장이 참석했으며, 천태종 나누며 하나님되기 진창호 사무처장은 “백신 미접종으로 아이들이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상황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기부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에 지역아동센터 및 연합회장은 “아이들 방역이 적색인



시기에 꼭 필요한 물품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 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